

조선대 등급 미달 수시 탈락 급증

올 743명으로 61% 늘어...등급제 혼란 따른 학력 기준 강화 탓

전남대는 12일 최종 합격 발표

조선대학교의 2008학년도 수시 2-2 모집 1차 합격자 중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해 떨어진 수험생(본보 12월7일자 8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험생들의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대학들도 등급제의 결과를 가능하기 힘들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조선대는 10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한 1차 합격자가 무려 36.5%인 743명으로 지난해 462명(전체 무려 10%)보다 60.8%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2천33명 모집에 6천285명이 지원, 3.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수시 2-2 모집 전형의 최종 합격자 수는 1천881명으로 결정됐다.

지난해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

해 불합격한 학생이 급격하게 많아진 이유는 우선, 사범대의 학력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범대 수시 2-2 1차 합격자 117명 중 절반이 넘는 62명이 불합격했다. 사범대 국어·영어·수학·과학·특수교육학과 등 5개 학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언어와 외국어 또는 언어와 수리' 등 2개 영역 모두 3등급 이상이었다.

조선대 관계자는 "약대의 경우 1차 합격자 수를 4배수로 뽑았고, 지난해에는 수시 2-2 전형에 없던 사범대 음악교육과가 포함되는 등 여러 이유들이 작용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달 불합격자 수가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합격자는 광주 출신이 67.36%(1천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21.69%(408명) ▲전북 3.67%(69명) ▲기타 7.28%(137명) 등이었다. 합격자 중 재학생 비율은 96.6%로 지난해보다 1%가량 증가했다.

한편 전남대의 수시 2학기 최종 합격자는 12일 발표된다. 전남대의 경우 지난해 모집인원 2천939명의 11.7%인 229명이 최저학력 미달로 낙방했으며, 올해도 기준을 강화해 상당수 1차 합격자의 탈락이 예상된다.

전남대 의예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언어·외국어·수리(가) 중 2개 영역과 과탐(2과목)에서 1등급, 수의예과는 수리(가)·외국어 두 개의 영역에서 2등급, 사범대(가정교육·수학교육·과학교육학부 제외)는 언어·외국어영역에서, 수학교육과·과학교육학부는 수리(가)·외국어영역에서 각각 3등급 등이다.

광주 대성학원 우부남 진학실장은 "등급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 학생이나 학교에서 등급제에 대한 '갑각'이 없어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며 "서울 등지의 태대에서도 조선대와 비슷한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수능 등급제 불만 폭주 집단 行訴 움직임

올해 도입된 수능 등급제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벌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등급제무효 행정소송 준비위'는 10일 카페 게시글을 통해 올해 대입 전형에서 수능 등급제 적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가처분신청을 제출키로 하고 고소인을 모집하고 있다.

카페 회원 'iseokp'는 "가능한 한 빨리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니 동참할 사람은 지원해달라"는 글을 올렸으며 일단 40여 명이 동참의사를 밝혔다.

한 회원은 "외국어 영역에서 1점, 화학에서 1점씩 모자라 원하는 대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동참할 뜻을 밝혔고 "고3 자녀를 둔 어머니"라고 소개한 회원은 "수리가 형에서 92점을 받고도 3등급이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김형준 변호사는 "수험생이 각자 치른 점수조차 알지 못한 채 넓은 영역의 학생들을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는 수능 등급제는 헌법이 규정 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침 빗방울
흐리고 비가 온 후 아침에 개겠다.

12월 11일
(음 11월 2일)
◇전국날씨

광주	비 후 맑음	6~11℃
주요도시	비 후 맑음	6~11℃
부산	비 후 맑음	7~12℃
대구	비 후 맑음	6~11℃
대전	비 후 맑음	4~10℃
전주	비 후 맑음	5~11℃
충주	비 후 맑음	5~11℃
청주	비 후 맑음	5~12℃
포항	비 후 맑음	4~11℃
울릉도	비 후 맑음	5~10℃
독도	비 후 맑음	8~12℃
제주	비 후 맑음	6~10℃
제주	비 후 맑음	5~10℃
제주	비 후 맑음	8~10℃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2:29 썰물 < 07:55
여수 밀물 < 10:06 썰물 < 03:26

▲해돋이 07:30 ▲해질 17:21 ▲달돋이 08:54 ▲달질 18:21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날씨						
최저/최고	2/9	3/9	0/8	-1/9	-1/8	0/7

여수의 報恩

"씨프린스호 은혜 갚자" 태안서 기름 방제 봉사

시민들 성금 모금운동

지난 1995년 '씨프린스호' 악몽을 겪었던 여수 시민들이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피해 돕기에 나섰다.

'여수환경운동연합' 회원 20여 명은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7일부터 현장에서 방제 작업을 돕고 있다. 지역 내 각 단체들도 자원 봉사자 모집과 성금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여수지역 사회단체들은 자원봉사자 모집에 완료되는 대로 '여수시민 서해안 방재단'을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다.

여수시민들은 유조선 '헤베이 스피리트호'가 대형 바지선과 충돌하면서 1만여톤의 원유가 서해안 만리포 등 해안가를 뒤덮자 10여 년 전 악몽을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씨프린스호' 기름제거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와 어민들은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초동 대처가 소홀한데다 방제 시스템

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치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상훈 여수YMCA 총장은 "세계박람회 개최해야 할 국가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민망한 일"이라며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해양오염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리도 어민들도 '씨프린스호' 사고 때 피해 증거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태안 피해 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당시 어민들의 보상 청구액은 735억5천400만원이었으나 실제 보상액은 502억2천700만원에 불과했다.

소리도 어촌계장 임정열(75)씨는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카메라로 찍어 놓는 등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덕천 청소년 선도대상 '범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광주지역협의회'(회장 주기권)는 10일 오전 광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신상규 광주지검장·김정환 전남도 교육감 등 각급 기관장과 범죄예방위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덕천 청소년 선도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비형 청소년 선도 등에 헌신적 봉사활동을 해온 '토박이 순창식품(주)' 대표 이일규씨 등 12명이 상을 받았다. /위정리기자 jrw@kwangju.co.kr

광주 '선거 소음' 민원 봇물

제17대 대통령선거 운동과 관련, '선거 소음'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접수된 112 신고 접수는 90건으로 이 가운데 80건(88.9%)이 선거운동 차량 소음 피해를 구청 조사결과 유체차량에서 나오는 소음은 평균 100dB로, 이는 공사장 소음(85~90dB)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외 선거 관련 민원은 교통 불편(6건·6.7%)과 교통사고 위험(4건·4.4%) 등이었다.

현행 선거법은 스피커와 휴대용 확성기 각 1대를 사용해 오전 7시~밤 10시까지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선박·여객선·지하철 등 연설장소에 대한 규제(공직선거법 80조)는 있지만, 소음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광주 선거관리위원회 박철(관리과) 계장은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어서 규제할 수 없다"며 "각 후보 진영에 소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해도 경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지켜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kps@kwangju.co.kr

전문대에서도 학사 학위 만다

광주·전남 9곳 전공 심화과정 개설

전문대학에서도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광주·전남 9곳을 비롯한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6천 830명)에 학사 학위 수여가 가능한 전공 심화과정이 개설된다.

광주·전남은 광주보건대학·기독간호대학·동강대학·서강정보대학·조선이공대학·광양보건대학·성화대학(강진)·순천청암대학·한영대학(여수) 등이며, 27개 학과에서 669명을 모집한다.

이는 지난 7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제50조의2)에 따른 것으로, 전문대학도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전공 심화과정 입학자격은 '전공 심화과정과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 분야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의 경우 1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채우면 된다. 학사 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해 140점 이상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올해 현재 전국의 전문대학은 148곳이며, 전문학사 입학정원은 24만여 명이다.

■광주·전남 전공 심화과정 설치 대학

지역	학교	학과	수업 연한	모집 정원
광주	광주보건대학	임상병리	1	20
		물리치료	1	20
		방사선	1	20
기독간호대학	간호	간호	1	24
		간호	2	20
		간호	2	20
동강대학	토지정보관리	토지정보관리	2	20
		관광경영	2	20
		인턴넷정보	2	20
서강정보대학	건축	건축	2	20
		유아교육	1	20
		경영대학	2	30
조선이공대학	임상병리	임상병리	1	30
		치위생	1	20
		소프트웨어	2	20
광양	광양보건대학	치위생	1	20
		임상병리	1	20
		인간공학	1	40
강진	성화대학	전기공학	2	30
		건축	2	30
		관광경영	2	25
순천	순천청암대학	관공경영	2	25
		세무회계	2	20
		응급구조	1	20
여수	한영대학	간호	1	25
		컴퓨터정보	2	20
		인테리어 디자인	2	20
여수	한영대학	레저스포츠	2	20
		공회계열	2	65

또 연간 전문대 졸업자 중 5만여 명이상이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4년제 대학 또는 방송통신대에 편입하거나 학점은행제 등을 활용하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고객감동의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 **애니체**

애니체는 서울지역에서 1만여 명의 직장인들에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Anych 광주광역시 광안로 33번길 1018-101 (062)942-1814, 1816

시제·제시상을 차려드립니다

일상 수납·세탁·선반·바닥 청소·물걸레 청소·등이 차려드립니다.

달양한과 ☎(061)383-8283